미래를 사랑하라

평양출판사
주체102(2013)년

머리글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 대하여 말한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

하지만 어떠한 사랑이 가장 참답고 아름답고 위대한가에 대해서는 각이한 주장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인민사랑이 사회제도의 사상적기초를 이루는 공화국에서는 후대들에 대한 사랑에 각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오늘의 후대들은 곧 래일의 주인공들로서 그들에게 바쳐지는 사랑은 다름아닌 조국의 앞날을 가꾸는 력사적위업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미래를 사랑하는것을 한생의 신조로 간직하시고 한평생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위대한 헌신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오시였다.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이 땅우에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숭고한 화폭들을 수놓아가고계신다.

김정은원수님의 미래사랑, 후대사랑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숭고한 뜻과 한없이 고결한 위대한 인간적풍모가 력력히 어리여있다.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민족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니 그 철리를 새겨주는 감동깊은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중 일부를 여기에 적어본다.

어린 대표들

주체101(2012)년 6월 따스한 해빛이 넘쳐나는 수도 평양의 하늘가에 소년단대표들의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있었다.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빛으로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

가슴속에서 넘쳐나는 행복과 기쁨을 노래에 담고 발걸음도 드높이 나아가는 소년단대표들의 씩씩한 모습과 그들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열광이 한데 어울려 수도의 거리거리는 감격과 격정으로 들끓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200명, 2 000명도 아닌 2만여명의 소년단원들이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대표로 선출되여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려온 것이다.

나라의 북단 백두산기슭의 정일봉중학교로부터 분계연선의 판문점중학교, 서해의 외진 섬 자매도분교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특별비행기와 특별렬차를 타고 평양으로 달려온 나어린 소년, 소녀들의 얼굴마다에는 다름아닌 자기들이 조선소년단의 당당한 대표라는 긍지와 자랑이 한껏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축행사대표로 초청해주신 그들모두는 평범한 근로인민의 자녀들이였다.

소년단원들의 대회가 온 나라의 깊은 관

심속에 성대한 경축행사로, 대축전으로 준비되고있음을 알리는 새라새로운 소식들이 신문과 방송, TV를 통해 련일 전해지는 속에 조국의 아침이 밝고 날이 저무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온 나라가 격동속에 맞이한 6월 6일, 뜻깊은 이날 **김일성**경기장에서는 감격과 환희의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을 맞는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해주시려 **김일성**경기장에 나오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아직은 어리여 장난기어린 롱을 건네며 와작거리던 아이들이 금시 어른이 된듯 눈물을 머금고 주석단을 우러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모범소년단원들이 꽃다발을 드리고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자

장내는 삽시에 격정으로 출렁이였다.

꿈결에도 그리며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광의 대회장에 모시고 조선소년단창립절을 경축하게 된 크나큰 행복에 넘친 소년단원들의 만세소리가 오래도록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대회장을 하얗게 덮은 아이들을 향하여, 온 나라 300만 소년단원들을 향하여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과 정을 담아 연설을 하시였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먼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우리의 장한 소년단대표들과 모범소년단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여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라는 그 음성이 2만여명 소년단대표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덥혀주었다.

얼마나 뵙고싶던 원수님이신가, 얼마나

다정하신 그이의 음성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계속하여 장내에 울려퍼졌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

그 누구에게서도, 부모들과 선생님에게서도, 다정한 이웃들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였다.

소년단원들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내세워주시는 원수님의 말씀을 듣는 소년단대표들의 가슴마다에는 이 세상 가장 존엄높고 가장 성스러운 소년조직의 한

성원이라는 행복과 영예감, 그 소년조직의 당당한 대표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났다.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울것이며 사랑스러운 우리 소년단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고 뜨겁게 축복해주시였다.

대회장에 모인 대표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소년단원들과 전체 인민이 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친어버이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신께서는 멀고 험한 전선길로 떠나시면서 아이들을 야영소로 보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라 오열을 삼키였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지니시고 어린이들을 제일로 아끼고 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두볼을 적시였다.

격정의 도가니에 휩싸여 주석단을 우러르는 행사조직일군들의 심정은 이 순간 남달리 뜨거웠다.

소년단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례없이 큰 규모의 행사를 조직하도록 하시

고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신 그이의 사랑과 은정이 눈물겹게 돌이켜졌기때문이였다.

조선소년단창립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던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절에 즈음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모범소년단원들을 2만명정도 평양에 데려다 주요대상들에 대한 참관을 조직할데 대한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고 일군들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많은 대표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데려오며 숙식은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의 이러한 생각을 먼저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수송수단과 숙식조건에 이르기까지 행사보장에서 제기될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이번 행사가 큰 행사인것만큼 청년동맹에만 맡겨두지 말고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소년단대표들의 구성상태로부터 행사규모와 기간, 참관일정과 휴식조건, 운수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료해하시고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필요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속에 소년단대표들을 평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땅우에서는 특별렬차가 달리는 전설같은 화폭들이 펼

쳐졌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제정해주시여 모범소년단원들에게 수여하도록 하시고 태양절에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에게 사랑의 선물과 새 교복을 일식으로 안겨주신 원수님.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삼가 올린 편지에 사랑의 친필도 남기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아이들을 위하여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고도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

소년단대표들을 위한 온갖 은정어린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도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 몸소 대회장에 나오시여 창립절을 맞는 온 나라 아이들에게 사랑

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웅심깊은 사랑에 일군들모두는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년단대표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은 이뿐이 아니였다.

이날 저녁 명성높은 은하수관현악단의 음악회도 특별히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년단대표들을 친히 자신의 옆자리에 불러주시고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원수님을 뵈옵는것만도 기쁨이고 행복이건만 몸가까이 모시게 된 영광에 눈물부터 앞세우는 학생들, 그들모두가 이름없는 평범한 로동자, 농민, 군인, 과학자의 자녀들이였다.

전국련합단체대회때 원수님을 모시고 열

자리에 앉는 영광을 지닌 녀학생은 초도에서 온 군관의 딸이고 만경대혁명학원제복을 입은 학생은 4년전에 인민군대에서 복무하다가 희생된 군관의 아들이였다.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가 끝난 후 원수님의 가까이에 앉아 목이 마르다며 어려움도 잊고 물 한고뿌 쭉 들이켰던 나어린 녀학생의 아버지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처리직장 로동자, 남학생의 아버지는 자매도의 평범한 등대원이였다.

어찌 꿈엔들 상상할수 있었으랴.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의 가슴에도, TV를 통해 행사전 과정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자꾸만 자꾸만 흘러내렸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을 영광의 대회장에 불러주신것만도 고마운데 자신의 곁에 두고 사랑에 사랑을 부어주

시니 세상에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공연이 끝난 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휴계실에서 여러명의 소년단대표들을 만나주시였다. 그들속에는 평범한 군관의 아들인 자강도 장강군의 한 소년단원도 있었다.

키가 제일 크다고 하시며 앞으로 무엇이 되겠는가고 물으시는 그이께 소년은 거침없이 인민군대가 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 제대되면 무엇을 하겠는가고 재차 물으시자 학생은 제대되지 않고 일생 군관으로 있겠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도 만족하시여 인민군대에 나가겠다고 한 그의 말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도록 하시고 그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뿌려주시는 사랑의 해빛은 아이들의 걸음걸음마다에, 행사의 전 과정에 이렇듯 따사롭게 비쳐들고있었다.

은하수공연이 끝난 후 아이들이 공연관람에서 받아안은 감흥이 가셔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수도 평양의 밤하늘을 밝히며 축포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여기저기서 동심을 터뜨리며 《만세!》소리가 막 터져나왔다.

지금까지 파도소리나 새소리만 듣던 외진 섬마을과 산골마을아이들이 너무나도 황홀하여 터져오르는 축포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대회가 있은 다음날인 6월 7일 또다시 아이들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

을 찍어주시였다.

아이들의 마음속생각을 그대로 헤아려주시며 2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차례 자리를 옮겨가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원수님, 행사기간 생일을 맞는 많은 경축행사대표들에게 생일상도 차려주시고 사랑의 선물까지 가슴가득 안겨주신 그이의 사랑은 그대로 조국의 미래를 위한 다심하고도 웅심깊은 친어버이의 사랑이였다.

그 사랑, 그 은정속에 나어린 소년단대표들은 평양체류의 나날 온갖 특전특혜를 다 받았으며 환영의 꽃물결속에 특별대우를 받았다.

소년단대표들이 탄 차들앞에는 언제나 푸른 신호등이 켜져있었고 그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에서 교통보안원들이 엄숙한

거수경례를 보내였으며 사람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내면서 손을 뜨겁게 흔들어주었다.

그들은 일생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뜻깊은 평양참관의 하루하루를 환희와 랑만속에 보냈다. 평양시의 여러곳을 참관하며 끝없이 번영하는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가슴마다에 새겨안았으며 수도의 극장들에서 이름있는 예술단, 교예단들의 공연도 관람하였고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도 보내였다.

참으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는 이 땅우에 후대사랑의 화원을 더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민족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보여준 대축전이였다.

중국의 중앙TV와 신화통신, 미국의 AP통

신과 CNN방송, 까타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 등 많은 나라의 신문, 방송, 통신들이 앞을 다투어 소년단원들의 행사소식을 보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조선의 행사장들마다에서 어른들이 자기 령도자를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는것은 많이 보아왔지만 아이들이 그처럼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조선의 남녀로소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계시는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알수 있다는것, 조선에서 진행한 학생소년들의 행사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조직할수 없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가장 특이한 행사라는것,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아이들의 행사를 통해서 인민대단합을 더 강화했다고

했다.

평양을 방문한 한 해외동포는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후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밝은 날을 마련해주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후대관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정성스레 가꾸니 조국의 앞날은 정말 창창하다, 최고령도자님의 인민사랑, 미래사랑이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을 낳는것이다, 정말 인민은 하늘이고 아이들은 왕이다, 국가가 거리에 국기까지 띄워놓고 아이들의 명절을 쇠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자기의 흥분된 감정을 토로하였다.

지어 남조선의 보수언론들도 어른도 아닌 철부지아이들이 자기 령도자를 그토록 따르며 흘리는 순결한 눈물은 지어낼래야 지어낼수 없다고, 그들이 주인으로 등장할

10년, 20년후 북의 미래를 그려보게 된다고 전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절행사는 말그대로 온 나라가 받아안은, 전세계가 받은 하나의 큰 충격이였다.

나라의 왕

고층건물들이 아아히 솟아오른 만수대기슭의 창전거리에 훌륭히 일떠선 경상유치원.

이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지적발전과 문화적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통하여 지난 기간 수많은 음악신동들을 키워낸 자랑많은 유치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 모습으

로 일떠선 경상유치원을 두번째로 찾아주신 그날은 주체101(2012)년 7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유치원마당가에 들어서시자 경상유치원의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감격과 기쁨은 하늘에 닿을듯 하였다.

원수님께서는 마치 두팔을 한껏 벌려 자식들을 따뜻이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이런듯 동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유치원의 전경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유치원 교직원들의 인사를 따뜻이 받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며 정중히 아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삼가 인사를 올리는 어린이들의 볼을 살

뜰히 쓸어주시고 몇살인가 물어주시며 그들을 다정히 껴안고 운동장으로 들어서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꼭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이여서 유치원 교직원들의 가슴마다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언제면 유치원에 원수님을 다시 모실가 행복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들, 하면서도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이 모두 그이를 기다리고있음을 너무도 잘 아는 교직원들이였다.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렇게 또다시 우리 유치원을 찾아주시다니…

후더운 감격에 목이 메여와 교직원들은 눈시울 적시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유치원운동장에서 유희기재들을 타며 신나게 뛰여노는 어린이들의 재롱스런 모습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운동장에 고무깔판을 깔아놓으니 좋다고 하시면서 무릎싸움도 하고 잔디밭에 설치해놓은 배그네, 비행기미끄럼대, 로케트비행기를 비롯한 유희시설들을 리용하여 재미나게 놀고있는 어린이들을 오래도록 기쁨속에 바라보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교직원들에게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여기시며 아이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온갖 은정깊은 조치를 다 취해주신 그이의 극진한 사랑이 가슴뜨겁게 어려왔다.

운동장에 깔아놓은 고무깔판과 유희기재들마다에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잇닿아있었던것이다.

유치원건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서고 있던 두달전인 이해 5월 몸소 이곳을 찾아주신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뛰여놀 운

동장이 잘 꾸려지지 못한데 대하여 마음쓰시였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운동장은 어린이들이 뛰여놀 장소이기때문에 전면포장을 하면 놀음에 정신을 팔던 아이들이 다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원형식으로 록지를 만들어주라고 이르시고 운동장에 설치된 놀이기재들을 보시고서는 배그네를 비롯한 기재들을 보내주겠으니 구색이 맞게 더 설치해놓을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려고 친부모들과 교직원들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문제들 하나하나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마음쓰시는 것이였다.

그후 원수님께서는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뜻깊은 6.1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유치원에 회전우주비행선, 회전강아지, 참대곰흔들이, 코끼리미끄럼대를 비롯한 유희기재들과 그림책을 비롯한 아동도서들, 유치원에 필요한 모든것을 일식으로 보내주시였다. 원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정속에 유치원이 이렇듯 더욱 훌륭히 꾸려질수 있었던것이다.

유치원운동장에서 유희기재를 타며 즐겁게 뛰여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말그대로 이슬을 머금고 금방 피여난 꽃봉오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치원앞마당이 그동안 완전히 달라졌다고, 운동장에 고무깔판을 깔고 놀이터에 록지를 조성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이제는 어린이들이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뛰놀다가 넘어져도 상하는 일이 없게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유희시설들을 받고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정말 좋아한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기쁨속에 들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교직원들은 감사의 정이 북받쳐와 눈시울을 적시였다.

보석주단을 깐 중앙홀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이들이 사철 리용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 지하물놀이장, 실내에서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게 된 운동놀이실, 유치원지붕우에 꾸려진 야외관찰장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의 모든것 하나하나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이 뜨겁게 슴배여있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에 들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상유치원에서 음악신동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치하하시며 이곳 유치원에서 재능을 익힌 예술인들의 이름도 일일이 꼽아주시였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인들속에서 이곳 유치원출신들을 헤아려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모두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뜨거운 매혹의 감정에 휩싸였다.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걸음걸음을 따라걸으며 그이의 하늘같은 은정과 사랑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뜨겁게 절감하였다.

그이께서 2층으로 걸음을 옮기실 때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바닥에는 어린이들이 오르고 내리는 모양을 본딴 발바닥모양이 그려져있었다.

그이께서는 계단에 그려진 발모양의 통행표시를 보시고 어린이들이 오르내릴 때 꼭 우측통행을 한다는 유치원 원장의 이야기를 웃음속에 들어주시며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를 지킬데 대한 교양을 자연스럽게 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해주시였다.

쪽무이나무깔판을 깐 바닥이며 매 층의 천정에서 아름다운 빛을 뿌리는 대형무리등, 깜찍하게 설계된 아치형책상과 의자, 잠방의 침대들, 복도벽의 공간을 리용한 여러가지 장식과 천정의 별장식들, 유치원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의 동심에 잘 어울리게 훌륭히 꾸려져있었다.

2층에 있는 종합놀이실에 들리신 원수님께서는 의사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시여 자신의 팔을 내미시며 한번

진찰해보라고 이르시고는 응석을 부리는 아이들의 볼을 다정히 어루만져주시였다.

여러가지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바라보시며 종합놀이장을 잘 꾸렸다고 교직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실 때 그들의 가슴은 크나큰 감동으로 젖어들었다.

지난 5월 이곳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복도벽과 층계를 올라가는 천정들에 엄마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꼬마토끼와 꼬마곰을 비롯한 여러가지 동화세계의 인형들과 종이로 접어 만든 학과 비행기, 공과 같은것들로 장식되여있는것을 보시고 이런것은 별치않아보이지만 아이들의 동심세계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교직원들의 노력이 깃든것이라고 치하해주신 그이이시였다.

유치원을 발전하는 현실과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고서도 교직원들의 수고를 먼저 헤아려주시는 그이의 하늘같은 은정에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랴.

아이들과 함께 동심속에 잠기기도 하시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고 주위가 다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의 모습은 정녕 해님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치원을 돌아볼수록 기쁘고 만족하시여 시종 환하신 미소를 금치 못하시였다.

식당에 들리시여서는 아이들이 리용하는 식탁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고 부식물공급체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며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운동실에 들리시여서는 롱구대 앞에 서시여 어린이들이 공을 던져넣는 모습을 한참이나 보아주시며 환하신 미소를 지으신 원수님, 력기운동을 하는 어린이들을 보시고서는 장수들같다고 호탕하게 웃으시고 권투를 하는 재롱스러운 모습과 미끄럼대놀이도 보아주시고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신 자애로운 어버이.

한없이 고마운 은정을 받아안고 인사를 올리는 어린이들에게 잘 놀라고 다정히 말씀하시고 돌아볼수록 아이들을 위해 바치는 교양원들의 정성이 지극한것이 알린다고, 이만하면 마음을 놓겠다고 말씀하시며 거듭거듭 치하해주실 때 교직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제일중대사로 여기시며 보육교양사업에서 이룩된 자그

마한 성과를 모두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에 다시금 눈시울을 적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치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헤아리시고 그 대책적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원수님께서 교양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교양실안의 온도가 조금 높다는것을 느끼시였다.

실내온도가 선선하지 못한데 대하여 헤아려주시는 그이의 다심함에 원장은 저도 모르게 랭온보장조건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솔직히 말씀올리였다.

많은 일군들이 찾아왔어도 이야기하지 않던 문제를 말씀올리였다는 한 일군의 보

고에 그이께서는 원장이 일을 하려는 일군이라고, 나를 믿고 제기한것인데 자신께서 다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이께서 1층에 꾸려진 강당에서 어린이들의 공연을 다 보아주시고나시였을 때는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한 저녁시간이였다.

하건만 그이께서는 보시는것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고 만족하시여 후대들을 위해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유치원 교직원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싶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이들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시건만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는 원수님의 모습

은 정녕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일을 나라의 제일 중대사로 여기시며 온갖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 그대로였고 안고오신 그 사랑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웅심깊은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차는 어느덧 보이지 않건만 그이를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소리는 오래도록 유치원하늘가에 울려갔다.

격정의 순간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따사로운 해님의 품이 있어 이 나라 어린이들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이 더욱 굳게 간직되였다.

원아들의 아버지

설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뜻깊은 명절이다.

이날에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설명절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해 들썩이군 한다.

하건만 영원한 해님으로, 운명의 어버이로 믿고 따르던 **김정일**장군님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며 낮과 밤을 이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2012년, 이해의 설날은 상실의 아픔과 절절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날이였다.

해마다 설날이면 전선길에 계실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며 자랑무대를 펼치

군 하던 아이들의 가슴에도 비애의 눈물이 흘렀다.

바로 이날 만경대지구의 나지막한 언덕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을 찾아주신것이다.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하는 학원의 전체 교직원들과 학원 원아들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와 기쁨, 격정의 파도가 소용돌이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중 나온 학원 책임일군들에게 원아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다정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목숨바친 렬사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육기관이다. 학원에는 유자녀들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어버이의 다심한 사랑과 은정속에 원아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을 아버지로, 조선로동당의 품을 삶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아버지장군님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너무도 커서 눈물로 설날을 보낼 원아들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신것이다.

원아들의 작은 눈가에도, 교직원들의 눈가에도 한없는 고마움과 격정의 눈물이 뜨겁게 고여올랐다.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성큼성큼 자기들에게로 다가서시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원아들은 목청껏 환호성을 터쳤다.

《만세!》, 《만세!》 …

그이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원아들의 빨갛게 상기된 얼굴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추운 날씨인데 장갑을 왜 끼지 않았는가, 손이 시리지 않은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친부모의 심정그대로 그들의 건강을 헤아려주시였다. 그리고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원아들의 흐느낌소리는 학원의 구내에 차넘쳤다.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지키고 가꾸는 길에서 청춘의 더운 피를 바친

아버지여서 그 이름을 소중하게 자랑스럽게만 마음속깊이에 간수하여왔는데 문득 그이앞에 서고보니 그렇듯 잊지 못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안겨든것이다. 언 볼을 녹여주시고 따뜻이 얼굴을 애무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손길은 정녕 꿈속에서만 그려지던 아버지의 모습이고 손길이였으며 그윽한 사랑이였다.

그래서 원아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터쳐 《아버지!―》 하고 그이를 목메여 부르고 또 부르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옮기시던 걸음을 몇번이고 멈추시였다. 그리고 더 걸음을 옮기지 못하신채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였다. 그러시는 그이의 눈굽도 뜨겁게 젖어있었다.

따뜻이 손저어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에

서 원아들은 이제부터는 수령님, 장군님을 대신하여 자신께서 아버지가 되여주시겠다는 그이의 무언의 뜨거운 약속을 읽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학원에 모셔져있는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전의 군복을 입으시고 거연히 서계시는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움직일줄 모르시였다.

원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던 절세위인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그이께서는 한걸음 더 가까이 수령님의 동상에 다가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동상을 우러르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원아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혁명의 골간으로 키우시기 위해 크나큰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학원에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더 잘 모셔주어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원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원아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소중한 마음을 제일먼저 헤아려주시는 그이를 우러러 일군들이 또다시 눈시울을 적시는데 원수님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은 한생토록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다,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당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는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세워주시고 유자녀들의 배움의 전당으로, 민족간부후비육성의 믿음직한 기지로 강화발전되여온 학원의 연혁을 깊은 감회속에 들어주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숭엄한 빛이 어려있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절세의 위인들의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의리의 상징으로, 사랑과 믿음의 요람으로 그 이름 빛나는 만경대혁명학원.

학원은 창립후 지난 65년간 유자녀들을 민족간부의 후비로 키워내는데 크게 공헌한 자랑을 안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가유자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골간부대, 핵심부대로 키우시기 위하여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음으로 하여 부모를 잃고 만주광야에서 헤매이던 혁명가유자녀들이 행복의 요람에 안겨 나라의 대들보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학원개원식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는 **김일성**주석과 1997년 새해의 첫아침 눈보라를 헤치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진 사진문헌들을 비롯한 사적물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시던 그이께서는 학원 원아들의 제복앞에 서시여 소매에 붉은 줄을 띠운것은 정말

많은 뜻을 담고있다고, 원아들이 거기에 어려있는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념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현대적인 교육환경과 과학교육설비들을 훌륭히 갖춘 여러 강의실들과 실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학원의 교육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학생들이 높은 전문지식과 군사기술지식을 소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육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특히 원리교육은 말로 하는것보다 직관교육으로 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이날 교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식당에 들리시여 설명절음식인 온반을 먹고있는 원아들의 밥그릇을 만져보시며 더운가를 알아보시고 맛있는가, 무엇을 먹고싶은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으며 원아의 등을 다정히 어루만져주시며 맛있게 먹으라고 이르시였다.

격정에 겨워 할바를 잊고 서있는 취사원들에게 국이 식으니 어서 담아주라고 이르기도 하시였다.

원아들이 저저마끔 흥에 겨워 식사를 하는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따뜻한 빛이 흘러넘치고있었다.

정말 친아버지를 모시고 모여앉은 화목한 대가정의 저녁식사시간이였다.

원아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그윽

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신듯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래일 명기소를 보내주어 푸짐하게 끓여먹이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이 내려와 원아들이 먹는 모습을 꼭 보아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의 침실에도 들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아들이 리용하는 침대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잘 만들었다고 일군들을 치하해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2층침대의 계단에 깃든 사연이 눈물겹게 되새겨졌다.

주체87(1998)년 1월 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원아들의 침실을 돌아보

실 때였다.

자식을 키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새로 꾸린 침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은 기쁨으로 빛나고있었다.

침실을 잘 꾸렸습니다, 이렇게 2층침대를 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방이 넓어서 원아들이 마음껏 놀수 있어서 좋고 2층침대에서 자고싶어하는 아이들의 동심에도 맞으니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라고 장군님께서는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는 생각에 잠겨있는데 그이께서는 문득 침대기둥에 설치한 자그마한 발디디개를 가리키시였다.

일군들의 시선이 따라서는데 그이께서는 원아들이 저런 발디디개를 짚고 2층

침대로 오르내리다가 헛디뎌 사고라도 나면 어쩌겠는가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2층침대로 오르는 량쪽 모서리에 편리한 사다리를 설치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다심하신 은정에 의하여 침대사다리가 새롭게 설치되게 되였던것이다.

뜨거운 감회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일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침실의 온도를 가늠해보시며 추운 겨울에도 뜨뜻이 지낼수 있게 온도보장을 더 잘해주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고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는 진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꼭 같으신 혁명가유자녀들의 친아버지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을 위하여 마련된 생일방에도 들리시여 학원일군들이 원아들의 부모구실을 잘해 그들의 마음에 자그마한 그늘도 없게 해줄것을 당부하기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어둠이 깃든 구내길을 걸으시며 운동장에 심은 잔디와 야외롱구장과 배구장의 깔판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시간이 가더라도 다 돌아보자고 하시며 체육관에도 들리시여 원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할데 대해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고 체육관을 번듯하게 더 잘 꾸려주자고 하시며 설계일군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더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사위는 점점 어둠속에 잠겨들었건만

그이의 발걸음은 전자도서실과 원아들이 리용하는 회관에로 계속 이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원을 돌아보니 그동안 시간이 없어 찾아오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한결 가벼워진다고, 무엇을 더 해줄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주겠으니 만경대혁명학원을 으뜸가는 교육의 전당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거듭되는 은정만을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의 마음은 젖어들었다.

한없는 고마움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만경대혁명학원에 오니 마치 고향집에 온것 같은 심정이라고, 혁명을 끝까지 할 결심을 더욱 가다듬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목이 메여올랐다.

학원일군들은 어찌하여 그이께서 가셔야 할 곳도, 만나주셔야 할 사람들도 많은 이 설명절에 이렇게 학원에 나오시여 품을 놓아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며 거듭되는 사랑을 안겨주시고 그토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지 늦게나마 그 숭고한 뜻이 헤아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만경대혁명학원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학원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어느덧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마당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학원의 책임일군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인 원아들을 동무들에게 맡기고 간다고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학원을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바래워드리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감격과 격정은 끝이 없었다.

뜻깊은 설명절날 오랜 시간 원아들과 함께 계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이 학원구내에 차넘쳤다.

혁명학원의 교육교양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창립 65돐을 맞으며 성대한 경축대회를 진

행하도록 하시고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혁명가유자녀들은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여야 한다》는 서한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주체102(2013)년 광명성절을 맞으며 만경대혁명학원에 원아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훌륭히 모시도록 하시고 몸소 동상제막식에도 참석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며 선군혁명의 명맥을 더욱 굳건히 이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선군의 길을 걸음걸음 변함없이 따르려는 원아들의 마음은 뜨겁게만 달아올랐다.

축 복

자식을 위해 바치는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정과 열을 더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끝없이 이어만지는것인지…

서해의 자그마한 섬 장재도.

조국의 지도에 너무도 작은 점으로 표시되여있고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서해의 자그마한 이 섬마을에도 숭고한 후대사랑의 이야기가 새겨져있다.

주체101(2012)년 8월 어느날이였다.

당시 조성된 준엄한 정세로 하여 그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서남전선의 최

남단 최대열점지역인 섬마을에 이른새벽의 공기를 헤가르며 자그마한 목선이 다가오고있었다.

어디서 오는 배일가, 어로작업을 하던 배일가, 우리 섬으로 온다면 무엇때문일가?

이런 생각으로 유심히 바라보던 섬초소의 병사들은 그만 너무도 꿈같은 현실에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천만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것이 아닌가.

군인들은 기쁨보다 놀라움이 더 컸다.

눈물속에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곳곳에서 달려나오는 군인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군인들의 열광적인 환호소리에 군인

가족들도 달려나왔다.

꿈같은 행복에 접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가족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였다.

섬마을녀성들은 친정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너무도 허물없이 매달리였다. 환히 웃으시며 그들을 자애로운 품에 안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들의 손목을 잡고있는 아이들의 볼도 다정히 쓸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태여난지 6개월밖에 안되는 정항명어린이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군관의 안해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가도 다정히 물어주시고 아쉽게도 출장중이라는 보고를 들으시고는 아

버지가 출장갔다는데 내가 항명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TV로 보면 정말 기뻐할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포성을 들으며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어린이들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포근히 안으신채 군인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순간이였다.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력사적인 화폭이였다.

그 다음해인 주체102(2013)년 3월 이른 새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찬 파도를 헤치시며 또다시 이곳을 찾아주시였다.

그새 몰라보게 큰 항명이가 어린 몸에 군복을 입고있는 모습이 귀여우시여 환하게 웃으시고 그의 집을 찾아주시여서는 항

명이의 첫돌이 어제였다는것을 미리 알고 왔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은 크나큰 감격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외진 섬초소의 이름없는 군관의 자식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며 거듭거듭 사랑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부르는 격정의 노래가 온 나라 강산에 울리여갔다.

비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찬서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말아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부르는 온 나라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그토록 절절하고 인민의 격정 그토록 뜨거운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후대사랑이 더없이 숭고하고 위대하기때문이다.

후대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지니시고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갈 미래의 훌륭한 역군들을 위해 온넋을 다 바치시는 열의인, 오늘의 세대뿐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대대손손 만복을 누릴 만년토대와 위대한 재부를 마련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정의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하기에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가 그리도 열렬하고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 TV화면에서 뵈옵기만 해도 인민은

한없는 고마움에 목메이는것이다.

침략세력들이 공화국을 압살하려 달려들던 준엄한 그 나날 인민들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어버이가 계시여 비바람, 불구름도 결코 두렵지 않으며 아이들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굳은 확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의 운명, 조국의 앞날은 창창히 열려져있다는 철의 신념이 더욱 굳게 자리잡았다.

숭고한 후대사랑의 이야기들가운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린이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축복의 친필을 보내주신 이야기도 있다.

평양긴마을1유치원 허준혁어린이도 축복받은 어린이들중의 한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준혁이가 한글자한글자 또박또박 써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사랑과 정을 담아 친필을 새겨주시였다.

《준혁아! 기특한 일을 했다. 정말 대견하구나. 어서빨리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자랑스러운 우리 준혁이에게 빨간별 5개를 준다.

2012. 10. 10

김 정 은》

사랑의 친필과 함께 손수 빨간별 5개를 그려보내주신 원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와 교양원들도 학부형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빨간별은 유치원꼬마들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셈세기며 우리 말 공부를 잘하였거나 좋은 일을 하였을 때에 받군 하던 빨간별, 유치원어린이들은 빨간별을 받은 날이면 마치 훈장이라도 탄듯 기쁨을 감추지 못해한다.

하다면 그 빨간별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어려서부터 관찰력이 비상하고 감수성이 빨라 한번 본것을 말과 행동으로 신통하게 옮겨 동네에서 신동으로 불리운 준혁이였다.

유치원 교양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린 준혁이는 유치원에 들어온지 두달만에 우리 글을 척척 써나갔고 그 뜻과 의미도 제법 설명하였다.

여름방학때였다. 준혁이는 문득 할머니에게 조국땅을 굳건히 지키는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데려다달라고 떼를 썼다. 지금껏 자기가 쓴 100여통의 위문편지를 전하

겠다는것이였다.

준혁이가 쓴 위문편지는 이렇게 되여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전해지게 되였다.

그의 소행을 알게 된 유치원선생님은 정말 착한 일을 하였다고 빨간별을 단번에 3개나 달아주었다.

준혁이는 자기의 빨간별자랑을 아버지 원수님께 한시바삐 아뢰고싶었다.

《자나깨나 보고싶은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안녕하십니까.

난 평양긴마을1유치원에서 공부하는 다섯살 난 허준혁이예요. 우리들을 제일 곱다고 사랑해주시는 원수님께 내가 배운 펜글씨로 편지를 써요.

…》

준혁이의 펜글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의 소행이 너무도 기특하시여 손수 빨간별 5개를 그려보내주시기까지 하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들사이에 혈연의 정을 이어주는 그리움의 편지가 오고간 첫날로부터 그이의 친필을 받아안은 어린이들은 수없이 많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남다른 축복을 받아안았던 리축복, 고후회, 민홍단, 리경연학생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훌륭히 자라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거라

김 정 은

2012. 2. 9》

이라는 은정넘치는 친필을 보내주신 원수님께서는 평양대동문유치원의 홍리향, 리향어린이들이 조선인민군창건 80돐과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은하수관현악단공연에 출연하여 노래를 부른 자랑과 제5차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우리 말 경연에서 특등을 한 소식을 담아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리향아! 더 밝고 아름답게 자라 훌륭한 조선의 딸이 되거라.

김 정 은

2012년 6월 27일》

《편지와 사진을 기쁘게 받아보았다.

앞으로 훌륭한 재능을 더 활짝 꽃펴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거라.

김 정 은

2012년 9월 13일》

이라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시였다.

제5차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특등과 1등을 한 자랑과 공부를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자랑을 안고 원수님께 편지를 올린 창광

유치원 김영훈, 박위나, 평양보통문유치원 최국진어린이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너의 뛰여난 재간을 보고 정말 놀랐다. 정말 훌륭해! 100점, 만점이다.

김 정 은

2012년 10월 10일》

《공부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거라!

김 정 은

2012년 10월 26일》

《너의 뛰여난 재능을 더 활짝 꽃피우거라!

김 정 은

2012. 11. 15》

이라는 은정넘친 친필을 보내시였다.

평양신원유치원 한위령어린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전거리 새 집이랑 경상유치원이랑 그리고 바다우에 우뚝 솟은 섬초소랑 찾으시여 자기와 꼭같은 어린이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TV에서 나올 때마다 원수님이 정말정말 뵙고싶었다고 간절한 그리움을 편지에 담으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찾아 멀고먼 길을 다니시면서 우리 나라를 철벽으로 지켜주시기에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꼭 우리 나라를 총대로 지키는 인민군대가 되겠다고 결의를 다지였다.

한위령어린이의 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서빨리 훌륭히 자라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인민군대가 되거라.

2012년 9월 27일

김 정 은》

이라는 축복어린 친필을 보내시였고 봉화화학공장유치원의 차금석어린이와 평양소룡2유치원의 오철현어린이들이 올린 편지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세요

김 정 은

2013. 2. 13》

《씩씩하게 자라서 용감한 인민군대가 되세요

김 정 은

2013. 2. 27》

이라는 사랑의 친필을 새겨주시였다.

커가는 자식의 모습을 두고 대견해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평범한 어린이들의 학

부형이 되시고 교양원이 되시여 그리도 다정히 대화를 나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낄것이 없다고 하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사랑하신 후대들의 미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봄날의 화원마냥 더 활짝 꽃펴나고있거니…

따사로운 태양의 축복속에 선군조선의 믿음직한 주인공, 역군으로 자라는 이 나라 어린이들보다 행복한 어린이들이 이 세상 또 어디 있으랴.

어린이들은 편지들에서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의 하늘이시고 해님이시라고 하면서 원수님께서 밥도 꼭꼭 드시고 꼭꼭 쉬셔야 꽃봉오리 우리들의 밝은 웃음이 있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은 개인의 몸인것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행복이며 또한 우리들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원수님께서 부디부디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아뢰였다.

오늘은 철없는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여도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사랑의 친필.

경애하는 그이의 친필은 그대로 내 나라, 내 조국의 미래에 대한 가장 열렬한 축복이다.

지금 온 나라 인민은 후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눈비가 몰아치고 불구름이 밀려든대도 끄떡없을 자식들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또 한분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여 후대사랑의 서사시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미래는 영원히 밝고 창창할것이다.

미래를 사랑하라

집 필 장은옥
장 정 리성일
교 정 어광남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2(2013)년 5월 2일
발 행 주체102(2013)년 5월 4일

ㄱ—1148ㄷ